

홍콩 여성들의 기도가 필리핀 교회로 이어지다

엘마 마고 (Elma Mago). 2015 년 4 월 7 일. 출처: 인게이지 매거진(Engage Magazine)



이 이야기는 돌로레스(Dolores)의 이야기이다. 그녀의 회심은 가족들의 회심과 필리핀의 내이티비대드 (Natividad)에 있는 망고 교회로 이어졌다.

46 세인 돌로레스는 부엔비니도 바나가와 결혼했고 두 아들이 있다 (왼쪽 사진). 큰 아들 드란레브는 간호사 과정을 방금 끝냈고 얼빈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며 3 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녀의 가족은 필리핀 내이티비대드의 바랑게이 산 마카리오에서 산다. 돌로레스는 2011 년부터 홍콩에서 가정 도우미로 일해오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리스라 부른다.

나사렛 교회를 알기 전 그녀와 가족은 로마 카톨릭 그룹인 엘 샤다이의 충실한 회원이었다.

도리스에게는 매리 보티스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곳 홍콩의 국제 나사렛 교회 회원이다. 도리스는 매리가 특별행사 때 초청할 때만 가끔 교회에 참석하곤 했다. 2009 년 9 월 13 일, 엘마 망고 목사는 도리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는 예수님을 주와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6 월 9 일, 8 년간의 충실한 일 끝에 그녀의 일이 종료되었다. 그녀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오랜 일에 대한 임금과 다른 혜택들을 제공하지 않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살 곳을 잃어버렸기에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교회에서 3 개월 동안 생활하며 오전에는 주일 학교와 예배에 오후에는 새신자 성경공부에도 성실히 참석했다. 교회에는 필리핀 가정 도우미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매들이 매 주 주는 돈에 대해 주님께 십일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2011 년 11 월 14 일, 그녀는 물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남편과 두 아들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고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성경공부를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교회는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2 년 4 월 14 일, 필리핀 라 트리니다드 벵구엣에 소재한 피코 나사렛 교회 갈리노 목사의 도움으로 데 라 크루즈 목사가 필리핀에 있는 도리스의 집에서 첫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홍콩 나사렛 교회 국제 선교회는 (중국 성도들임) 성경을 제공하기 위해 헌금했다.



필리핀에 있는 그 새로운 신자들의 그룹을 이제 망고 교회라 부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면 망고 나무 밑에서 모였기 때문이다. 그 교회는 이제 3 년째를 맞고 있다. 로메오 데 라 크루즈 목사와, 엘리에셀 라올라 목사, 사울 유지니오 목사가 매주 번 갈아서 예배와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도리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이 마침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2013 년 3 월 31 일 물세례를 받았다. 도리스는 아직 홍콩에 머물며 목사와 그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곧 필리핀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며 망고 교회에 참석하려 계획하고 있다.

홍콩 국제 나사렛 교회의 수잔 팍탄이 이끄는 일단의 여성들은 두 교회와의 동역관계를 위해 망고 교회를 신실하게 재정적으로 돕고 있다. 그들은 망고 교회를 자신들의 자녀 교회로 여긴다. 그 여인들은 10-15 명이 망고 교회에 모이는 지역 사회에 무슨 필요가 생기면 재정을 후원한다. 그들은 망고 교회가 결국 영구한 모임 장소를 짓게 되기를 바라며 땅을 사기 위해 35,000 페소를 조성했다.



필리핀에 있는 교회 곁에 머물며 돕고자 노력해 온 것과 지속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홍콩의 교회는 진정한 국제적 교회가 되었다.

